

▶ 의생활 · 주생활

韓·中·日 복식의 근대화 과정과 서양문화수용정책에 관한 연구

김 은 정(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이 영 예(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전 현 실*(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본 연구는 韓中日 三國이 서양 문물을 접하게 되는 근대화 과정의 초기 단계(1850년대~1910년대 초반)에서 동양 각국의 개화기 복식 문화 양상을 비교해 보고, 각 국의 정책이 새로운 문화의 수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양 복식의 근대화 과정이 서양 복식의 영향에 따른 서구화현대화라는 관점을 벗어나, 동양 3국의 서로 다른 서양 문화의 수용 과정에 나타났던 미묘한 각국의 개화기 복식 형태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역사 및 문화 인식에 따른 복식문화의 영향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화기의 시점에서 한중일 각 국이 작간접적으로 표방한 서양 문화의 수용 정책은 전통 복식의 유지와 서양 복식에 의한 근대화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근대 한국은 국초부터 따르던 중화에 대한 명분을 버리지 않고 명의 제도를 국말까지 유지하다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까지도 전통지향과 서구화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서양문화유입 직후 서양복식의 착용이라는 단계로 전환되지 않았고, 유입되는 기간도 비교적 길었다. 1890년대를 전후로 간간히 등장하였던 서양복은 일부층에서 수용하였을 뿐이며, 또한 각종 의제 개혁에 의하여 1890년대 이후 구미식 의복이 등장하게 되는 등 서양 복식이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구미식 의복을 채택한 일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근대중국은 고대부터 실크로드를 통한 서양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행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문화 안에 타 문화를 적절히 융합하여 중화주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서양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복식 근대화의 보수적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즉 전통복은 유지되면서 색상, 구성법의 변화만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양복이 쉽게 전파되지 않았고 특정한 곳, 즉 관공서나 학교 등에서만 유니폼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거나 서양의 모자나 머리모양이 전통복과 함께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은 메이지 시대에 에도시대에 쇄국 정책이 잠시나마 행해졌으나 이미 16세기 모모야마 시대에 남만 무역을 통한 서양과의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서양문화 수용 시 큰 갈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책적으로 '로쿠메이칸'이라는 공간을 통해 서양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 개방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는 동양 3국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복식의 서구화가 이루어진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반면 전통복식은 여성을 중심으로 발전적 계승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개화기의 동양 3국 복식은 공통적으로 복식의 서구화의 과도기에 있었고, 동시에 서양복과 각 국의 전통복식이 양립하는 이중 구조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양립하는 과정 중에서 각 국의 서양 문화 수용 인식과 정책에 따라 전통복식의 계승과 서구화의 정도가 나라별로 명확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다.